

등산로 야간조명 계속 켜 놓으니...

생태계 교란... 곤충 죽고 식물은 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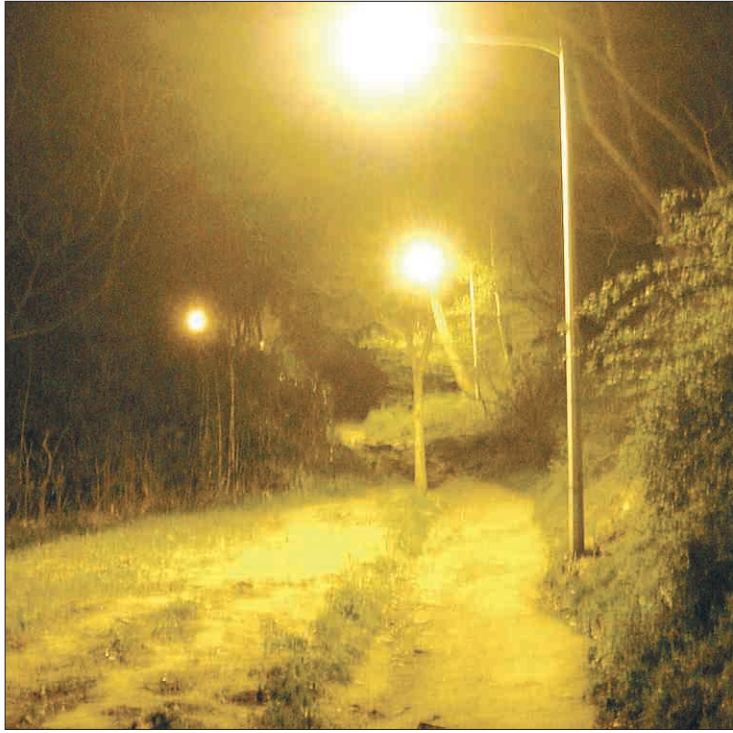
광주시 각 구청들이 심야시간에 등산로 조명을 환하게 밝히고 있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심야조명은 동식물의 서식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다퉀 등산로 가로등 설치 = 동구청은 조선대 학군단을 출발해 깃대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0.7km

로등을 현재, 일몰 때 점등해 자정부터 4시간가량 소등하고 다시 일출 전까지 켜놓는다.

금당산을 공동관리하고 있는 서구청은 풍암저수지 건너편 인공폭포 등산로에 일반등(150W) 12개를 1999년도에 설치해 저녁 7시30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점등하고 있다.

이런 가로등은 안전사고를 예방



조선대에서 깃대봉을 오르는 등산로 가로등이 등산객이 없는 심야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種간 영역다툼·근친교배... 동·식물에 악영향
지나해 목표 유달산 조명 설치후 매미 떼죽음
빛에 민감한 솔부엉이·소쩍새 개체수도 줄어

구간 21곳에 메탈(75W)과 삼파장(150W) 가로등을 지난 95년과 98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로등은 등산로 초입에 있는 수동스위치 위치를 이용해 등산객이 직접 켜고 끌 수 있게 설계돼 있지만 야간 등산객이 드물고 스위치 위치를 잘 몰라 밤새 가로등의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

제석산과 금당산을 관리하고 있는 남구청은 제석산 일대에 조성된 등산로에 2003년 7월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LED(36W)와 일반(100W)가로등 34개를 설치했으며 같은 해 11월 태안사 입구부터 금당산 정상까지 오르는 등산로 2km 구간에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4개의 가로등을 추가했다. 이 가

하는 '보안등'이란 명목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심야시간대 등산로를 찾는 시민들이 드물어 결국 생태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곤충 죽고, 식물은 변색 = 장시간 점등돼 있는 가로등에 노출돼 있는 동·식물은 심하면 죽음이 이르러는 등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전구가 수목의 잎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전나무 5년생 묘목의 잎에 142lux의 전구를 이용해 2주간 빛을 비추는 동안 수분함량이 2.2% 감소했고 한 달 후에는 7%가 줄어 잎의 일부가 노랗게 변했다. 목포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8월 목포시가 유달산 유

선각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 이후 매미 200여 마리와 다른 곤충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 조명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빛에 민감한 동물의 경우 그 피해가 훨씬 크다. 대부분의 동물은 야간에 가로등이 있는 곳을 피해 활동하기 때문에 서식지가 좁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먹이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종(種)간의 영역이 겹침으로 인해 다툼도 심해

지고 근친교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결국, 서식지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우지동물인 최종옥 수의사는 "야간조명은 밤에 잠을 자야하는 새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며 "소쩍새·솔부엉이 등 빛에 민감한 새들은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엔 사람이나 빛에 민감하지 않은 들쥐·너구리 등 설치류만 남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7일 광주시 북구 '향토의 거리'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 시화전'. 북구청은 오는 21일까지 향토문화센터 일대에서 오월 정신이 담긴 지역 문인들의 시화와 엽서 등 40여 점을 전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그림으로... 소설로... '5·18 체험'

북구 내달 2일까지 시화전 등 문화 한마당

광주시 북구가 '5·18 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북구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동안 향토문화센터 앞에서 김규동의 '무등산', 이형권의 '신문고' 등 오월 정신이 담긴 지역 문인들의 시화와 엽서 등 40여 점을 전시하는 '거리 시

화전'을 펼친다.

또 12일과 26일에는 향토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작가지자 5·18 참여자이기도 한 조진태 광주·전남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과 시인 윤석진씨를 초빙, 관내 중·고생 24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문학강좌'를 연다.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북구 향

토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박해강의 '꽃잎으로 높다', 이은봉의 '한송이꽃'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유품원과 창작관련 소장품 80여 점을 특별 전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설로 만나는 5월향장展', 경제 인형극인 '가방 속 친구들' 등이 잇따라 개최된다. 북구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오월정신이 담긴 소설이나 시 등 문학작품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제1회 오월 어머니상

심금순·박정자씨 모녀 김영복·성수남씨 부부 원풍모방 노동조합



<박정자씨> <성수남씨>



<원풍모방노동조합>

'(사)오월 어머니의 집'(관장 안성례)은 7일 제1회 오월 어머니상 수상자로 ▲심금순(작고)·박정자씨 모녀 ▲김영복(작고)·성수남씨 부부 ▲1980년 당시 원풍모방 노동조합 등 3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월 어머니상'은 1980년 당시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숨은 시민을 찾아 공적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됐다.

고(故) 심금순씨는 속칭 '무등산 타잔'으로 알려진 고(故) 박흥숙씨의 어머니로 딸 정자씨와 김법과 주먹밥을 만들어 향정지도부인 전남도청에 직접 전달하는 등 오월 항쟁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심씨는 1980년 12월 신군부에 의해

아들 박씨가 사형되자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 생활을 하던 중 5년 전 사망했다.

오월 항쟁 당시 광주 기독교병원 사진기사로 일한 고 김영복씨는 공수부대의 만행을 현장 촬영, 부인 성수남씨와 함께 사진을 현상해 외신기자에게 전해 세상에 알렸다. 김씨 부부는 또 부상자를 후송하고 계엄군에 포위된 학생들을 구출하기도 했다.

원풍 모방 노동조합은 광주학살 소식을 접하고 노조 긴급회의를 소집, 희생자 및 구속자들을 돕기 위해 470만 원을 모아 광주대학교

윤공희 대주교를 통해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전달했다.

시상식은 8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장동 '(사)오월 어머니집'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 5월 8일 문을 연 '(사)오월 어머니집'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식이나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제2순환도로 서창~산월IC 15일 개통

전구간 통행료 2,900원 잠정결정

오는 15일 제2순환도로 4구간 서창IC~산월IC 6.5km구간이 개통되면 전체 구간 통행료는 2천900원(승용차 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7일 "4구간 서창IC~산월IC구간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천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km 당 150원인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 외곽을 잇는 제2순환도로 전체 구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1구간인 동광주IC~소태IC(8.6km) 1천원과 3구간인 효덕IC~서

창IC(8.8km) 900원을 합쳐 총 2천900원에 이르게 된다.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2구간 소태IC~효덕IC(2.9km)과 호남고속도로 구간(10.9km)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행료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한 만큼 통행료 수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원금과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줘야한다"며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동구청, 기초질서 연중캠페인 벌인다

광주시 동구청은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단횡단 근절'과 '불법광고물 단속'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 전개하기로 했다.

동구는 이를 위해 매주 한차례 구청장이 직접 기초질서 지키기 현장체험에 나서고 부구청장과 각 실과 과장들을 각 분야별 책임관으로 지정했다.

또 매주 1회 열리는 '동구아카데미'에서 기초질서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도 건축 공무원과 한국옥외광고협회 동구지회 관계자 등 5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투입, 불법광고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적발해 수거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

새로운 품격의 프리미엄이 선보입니다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현장
재래지선 송정역 / 송정역역 근접타이머
광신구역 중정중고

샘플하우스 OPEN 5월16일

49 | 36 | 32 평형
159세대 (준공예정일 2007년 6월 30일)

분양문의 945-8600
광신가족 : (주)광신종합건설 · (주)광신주택 · (주)광신전입

박찬환 팬사인회 ▶ 일시 : 5월16일 오후2시 장소 : 샘플하우스

국제외식산업(주)
SINCE 1985

맛과 멋을 새롭게... 인터넷주소 국제외식

야외 결혼식 가능 (뷔페)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안주류)

출장뷔페 예약상담 ☎. (062) 262-2278